성공 예감! 디자인 축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첫 주말

개막(5일) 3일째를 맞은 '2007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전시장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성공적인 디자인 축제를 예감하고 있다.

개막 후 첫 주말이자 휴일인 6~7일 디자인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는 이틀 동안에만 1만 2천여명의 가족단위 관람객이 몰리는 성황을 이뤘다.

또 개막 3일 동안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은 지난 1회 대회 같은 기간 보다 2천여명이 증가한 1만8천명을 기록,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재단은 개막전 판매된 11만여장의 예매권을 고려할 경우 관람객 유치목표 30만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세계 45개국에서 모두 2007점의 작품이 선보이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서는 체험형 전시작품이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본 전시 'Life(생활의 빛)' 코너에 설치된 김길호, 이원진씨의 공동 작품인 '감상의 비밀'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감상의 비밀'은 박스형 빛 조형물로 관람객들의 목소리에 따라 빛의 색깔이 다양하게 변하는 '하모니 컬러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첨단 설치작품.

관람객들은 또 디자인 체험관에 전시된 보아즈 코헨& 사야카 야마모토의 '스윙램프', 노이바우어 미하엘의 '시소' 등 인터렉티브(관객이 작품을 변형하고 완성하는 것) 작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3일째를 맞은 7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을 찾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디지털 푸른 빛에 발을 담그면' 코너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이틀동안 1만 2,000여명 관람 성황

체험행사 호응…'감상의 비밀' 등 북적

광주비엔날레의 전시주제인 '빛 LIGHT'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5~6일까지 이틀 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국제 컨퍼런스도 디자인계의 관심속에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를 비롯 호서대, 홍익대, 전남대 디자인 전공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U-디자인시대의 융합과 소통'을 주제로 열린 국제디자인 컨퍼런스에는 피터 잭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회장,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 자크랭 국제 공업 디자인 단체 협의회장 등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가, 디자인의 미래를 조망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특별전 참가 조명디자이너 잉고 마우러

"산업적 성격 디자인 예술적 승화 돋보여"

"산업적인 성격이 강한 디자인 작품을 예술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린 전시내용이 매우 돋보입니다."

세계디자인평화선언 상징 조형물 설계자인 잉고 마우러(75·사진)는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둘러본 뒤 "디자인과 예술적인 성격의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결합한 전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독일 출신인 잉고 마우러는 '빛의 시인'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조명디자이너로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부대행사로 마련된 특별초대전에서 대표작 4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잉고 마우러는 "빛을 주제로 한 본전시는 다양한 빛의 세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전시다"며 "전체적으로 전시의 짜임새를 보강한다면 세계적인 행사로서 손색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디자인 평화선언 상징 조형물인 '평화의 빛'과 관련, "타월을 쥐어짠 뒤 세워놓은 모양이 창작의 모티프로, 이는 억눌리고 비틀렸던 5·18광주항쟁의 염원이 뭉쳤던 타월이 풀리는 것 처럼 역동적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자인계의 아웃사이더'로 불리기도 하는 그는 "디자이너가 반드시 작품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어야 제품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며, 오히려 디자인을 배제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것이 좋은 작품이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시립미술관, 구태를 벗어라

"미술관이 많지 않은 나라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난하다. (미술관 빈곤은)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일에 종사하고 있든 일을 찾고 있든 상관없이 노동의 노예로 전락해 눈앞의 것에만 연연하게 한다. 영화관이나 도서관처럼 미술관은 자유로 통하는 길이다. 미술관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근심을 잠시 접고 광활한 상상의 세계에 빠져든다. 그곳에서 우리는 인간이 창조한 가장 아름다운 산물인 미술품으로부터 기쁨을 얻는다…."

'웬디수녀의 미술이야기' 시리즈로 유명한 미술평론가 웬디 베케트는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보려면 미술관으로 가라"고 말했다. 굳이 웬디수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 나라의 문화척도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세계 각국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박물관·미술관 진흥에 힘을 쏟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다.

'미술관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술관의 공공성에 주목해왔다. 이들은 양질의 콜렉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시회를 통해 지역민들의 미적 안목을 끌어올린다. 그뿐만이 아니다. 철저한 관람객 조사를 바탕으로 연령별, 계층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 시립미술관이 오는 11일 중외공원시대를 맞는다. 지난 92년 운암동 문예회관의 부속시설에 둥지를 튼 이후 15년만에 새 보금자리(연면적 8천660㎡ 규모)를 마련한 것이다. 전용 수장고 하나 없어 '무늬만 미술관'이라는 오명을 받아야 했던 시립미술관으로서는 명예회복에 나설 수 있는 기회다.

사실 시립미술관은 전국 최초의 공립미술관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과천 국립 현대미술관 다음으로 최다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광주 시민들을 미술관으로 끌어들이는데 실패했다. 1일 평균 관람객이 100명(2006년 기준)을 밑도는 초라한 성적표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지역민들의 문화욕구를 헤아리지 못한 안일한 운영 때문이다. 비엔날레 도시의 대표미술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획전은 국제적인 흐름이나 실험적인 양식과는 거리가 멀다. 15년전이나 지금이나 시립미술관의 주요기획전은 원로·중진작가들의 발표무대다. 미술관측이 11일 야심작으로 내놓은 개관기념전이 '광주·전남 대표작가전'인 것만 봐도 그렇다. 교육프로그램도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도 배울 수 있는 실기강좌가 대부분이다.

21세기 미술관은 더 이상 박제화된 전시공간이 아니다. 변화된 관람객들의 취향과 의식을 발빠르게 수렴해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새 시립미술관이 규모에 걸맞는 품격을 갖추려면 전시,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총체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구태(舊態)에 젖어 있는 한 '중외공원 미술관' 역시 '관람객 없는 미술관'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인문학의 위기 소통으로 극복"

전남대 인문학연구소 학술진흥재단과 '2007 인문주간' 행사

14일까지 전남대 인문대 등

"인문학의 위기, 소통으로 극복하다."

전남대 인문대학·인문학 연구소가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함께 8~14일까지 '2007 인문주간'을 갖고 국내 인문학자들을 초청,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주제는 '열림과 소통, 따로 또 함께'. 〈표〉

전남대 인문대학은 8일 학술회의실에서 고교 인문교육의 현실과 대학의 역할을 진단하기 위해 '교장선생님과 인문학자의 대화'를 마련했다.

인문학연구소 주최로 영화배우 오광록이 '시인의 삶 배우의 인생'을 주제로 강연하며, '연구공간 수유+너머'의 촌장인 고병권, 문학평론가 김형중, 철학교수 박구용씨 등 젊은 인문학자들이 참가하는 토론 '난장'이 '인문학, 대학 안·밖 그리고 사이에서'를 주제로 열린다.

이 밖에 '우리 시대의 인문 강의', 전시 및 상영·강연 등으로 이뤄진 '호남의 문화원형을 찾아서'와 '애증의 한일교류', '김삿갓과 오늘의 만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됐다.

한편 행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은 전국 14개 대학 및 단체가 광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익산 등 8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2007 인문주간' 홈페이지(hweek.krf.or.kr) 참조. 문의 062-530-3119.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2007 인문주간' 광주 행사 일정

행사명	인문학이야기+토론'난장'	호남의 문화원형을 찾아서	김삿갓과 오늘의 만남	애증의 한일교류 -조선통신사부터 욘사마까지	골목길 인문 강좌	인문학 시민프로젝트				책의 생명력전
장소	전남대 인문대 소강당	문화중심도시 전시실 (본관)	문화중심도시 홍보관	전남대 학술회의실 인1-102	전남대 정문 청년글방	전남대 정문 청년길 일대				문화중심도시 전시실 (별관)
시간	17:00~19:00	10:00~18:00	전시10:00~20:30 강연16:00~18:00	전시10:00~20:30 강연18:00~20:00	19:00~21:00	09:00~20:00				10:00~18:00
10.8 (월)					왜 인문학의 위기인가 -서동욱	LOVE LETTER	이야기하는 골목길	걷는 즐거움	개똥철학 어록전	감정의 쓰레기통전	'금서(禁書)'전 시화전'책'
10.9 (화)	시인의 삶 배우의 인생 -영화배우 오광록	전시 호남의 100대 문화원형 전시 / 시연 E-러닝콘텐츠 / 상영 애니메이션 호남의 인물			인문학 탈주하기 -고미숙						
10.10 (수)	소리로 푸는 인문학 -명창 윤진철		개막식 설명회 -박준규, 김대현	조선통신사가 본 일본, 일본인 조선에서 온 사진 엽서	인문학과 예술의 만남 -박만우						
10.10 (목)	토론 '난장' 인문학, 대학 안·밖 그리고 사이에서 -고병권·김형중·박구용·심세광·전효관		김삿갓의 시집 -양동식, 김현선	재일교포, 마음의 고향을 찾아서 욘사마, 그 빛과 그림자	인문학과 문학적 상상력 -김연수						
10.11 (금)			김삿갓의 시세계 -김성기, 이건호	전시	인문학 상생하기 -이종민						
10.12 (토)			김삿갓 문학지도 -문제선·서현만								